

발현적, 관습적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Mothers'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about Emergent and Conventional Writing on Children's Writing Ability

최윤정(Yun-Jeong Choi)¹, 최나야(Naya Choi)^{2*}

¹Department of Life and Culture, Catholic University, ²Departmen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mothers'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for writing on young children's writing ability. A total of 450 children aged 3 to 5 years and their mothers from 6 different provinc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mothers conducted more writing guidance to older children. And their beliefs and use of resources for conventional writing were reinforced as children got old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mothers' beliefs and use of resources for emergent writing according to children's age. Second, mothers'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for children's writing were robustly correlated. These correlations were prominent in each factor of emergent or conventional writing. Third, mothers' writing guidance and use of emergent writing resources had positive effects on children's writing ability, while the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had a negative impact.

▲주제어(Key words): 발현적 쓰기(emergent writing), 관습적 쓰기(conventional writing), 어머니 쓰기 신념(mothers' writing beliefs), 쓰기 자료 활용(use of writing resources), 쓰기 지도(writing guidance), 유아 쓰기능력(children's writing ability)

I. 서론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과 멀티미디어의 급속한 발달로 문자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어린 유아들에게도 생활에서 문자가 갖는 의미가 더 크게, 더 빨리 인식되고 있어(Neumann, Hood, Ford, & Neumann, 2011), 세계적으로 문자 교육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이다.

유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타인의 의사를 수용하는 의사소통능력이 중요하다고 보며, 쓰기 교육이 유아기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우리나라의 국가 수준 교육과정인 만 5세 누리교육과정의 의사소통영역 중 쓰기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쓰기에 관심가지기', '쓰기 도구 사용하기'로 범주를 나누어 이전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루며(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쓰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J. Lee, S. Ma, S. Kim, and J. Jeong(2015)은 유아가 읽고 쓰는 문

• 본 논문은 2016년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Naya Choi, Department of Child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43, Jibong-ro, Bucheon-si, Gyeonggi-do, 14662, Korea, Tel: +82-2-2164-4114, E-mail: choinaya@catholic.ac.kr

해능력이 이후의 학업수행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유아의 쓰기능력에 대한 부모들의 기대도 점차 커져, 실제적으로 유아들이 쓰기를 배우는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 부모들의 인식과 지도 실태를 조사한 연구들에 따르면, 유아를 위한 쓰기 지도는 만 4-5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며(S. Hong & Y. Ahn, 2003; J. Kang & J. An, 2008; E. Park & S. Park, 2014), 지도 방식은 취학에 대비하는 관습적인 방식이 상당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쓰기에 대한 흥미는 아주 어린 시기부터 나타나, 3-5세 유아 중 대부분은 읽기를 하기 전에 쓰기 도구에 흥미를 보인다(Chomsky, 1971). 유아들은 표시 남기기를 좋아해서 물, 음식, 립스틱, 면도용 거품, 색연필과 크레용 등 어떤 것으로든 '쓰면서' 자국을 남기며, 이러한 욕구는 유아가 표시를 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Makin & Whitehead, 2004). 유아는 눈과 손의 협응력이 발달하고 소근육을 조절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끼적거리면서 선이나 글자 모양과 비슷하게 써보기, 책이나 주변 인쇄물에 있는 글자 베껴보기, 자신의 이름이나 친구, 가족의 이름, 철자 써보기 등 다양한 형태의 쓰기를 실험한다. 이처럼 유아의 자발적 욕구와 흥미에 의한 쓰기는 유아들의 쓰기능력 발달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Y. Lee & J. Lee, 1985).

이와 같은 발현적 문해의 관점에서는 생애 초기부터 문해가 발달한다고 보며, 이는 일상생활 속에서 의미를 주고받는 사회적 상호작용이 지속될 때 이루어지므로 영유아들에게 인지적, 언어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문해 경험의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C. Lee, 2005). 쓰기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글을 쓰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글을 통해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Myhill, 2011). 유아들이 점, 선, 원 및 기타 자국을 만들어내며 눈과 손의 협응을 발전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쓰기 발달 측면에서 이러한 표시를 통해 의미의 전달을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이 왜 글자를 쓰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쓰게 되는지 문자언어의 목적과 기능을 이해하게 되면 유아들에게 문자에 대한 흥미가 생겨 쉽고 즐겁게 쓰기를 할 수 있다(Y. Noh, C. Kim, & Y. Jeon, 2014). 따라서 초기의 쓰기 지도는 언어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쓰기는 학문적인 학습을 지원하고 배운 것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으로 간주된다(Peterson, McIntyre, & Forsyth, 2016). 즉, 학교 교육에서 쓰기의 비중이 크다는 것인데, 읽기, 셈하기와 함

께 쓰기가 학교준비도의 핵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가정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쓰기교육이 저연령화,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쓰기는 읽기에 비해 결과물로 남는, 즉, 눈에 보이고 평가로 이어지는 특성이 강한 것도 이러한 경향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M. Kim(1999)의 연구에서는 과반수의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쓰기는 유아 스스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이전에 성인이 가르쳐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어머니들은 직접적이고 반복적인 학습지 중심의 읽기, 쓰기 교육보다는 자연스러운 의미-활동 중심의 문자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실제 유아들을 지도할 때에는 보다 관습적인 방식을 포함하여 유아에게 필요한 다양한 지도 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나(J. Kim & M. Lee, 2005), 신념과 수행 면에서의 불일치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유아들은 발현적 쓰기와 관습적 쓰기를 동시에 경험하며 발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동일 연령에서도 유아들의 쓰기 형태는 다양한 수준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쓰기가 특정 시기에 갑자기 출현하는 능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달하며(S. Lee et al., 2010), 개인차가 큼을 의미한다. 연구로 이러한 양상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은 유아들의 창안적 쓰기와 관습적 쓰기가 병행되어 나타남을 보여주었다(H. Cho & K. Lee, 2012; H. Kim, 2014; C. Sung, 2004). 척도를 개발하여 유아들의 문해활동에 대한 선호도를 살펴본 연구에서는 유아들이 발현적 문해 활동뿐 아니라 관습적 문해 활동에 대해서도 유사한 선호를 보이고, 교사들도 기관에서 두 영역의 활동을 모두 실시함을 보고하며 그 중요도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인식하였다(N. Choi, 2017).

유아들의 쓰기능력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만 4세와 5세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먼저, 만 4세 유아의 자발적 쓰기를 통해 쓰기의 목적을 살펴본 H. Cho and K. Lee(2012)의 연구에 따르면, 유아는 작품에 주인의식을 표현하거나, 작품명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상상을 표현하거나 생각과 감정을 다른 사람과 주고받기 위해 쓰기를 한다. 또한 유아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쓰기를 통해 다른 사람을 모방하고자 하며, 자신이 아는 글자나 단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쓰기를 체험해 보기 위해서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Y. Han, H. Kim, H. Kwon, Y. Yang, and E. Baek(2013)은 5세 유아들은 철자와 소리가 서로 연관됨을 알고, 띄어쓰기를 시도하기 시작하며, 쓰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써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4, 5세 유아들이 인식하는 쓰기의 기능을 연구한 S. Kim(2002)은 유아들이

쓰기를 의사소통, 학습, 기록의 도구로 인식함을 보여주었다. 즉, 이 시기 유아들이 이미 쓰기의 필요성과 기능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연령에 따른 유아들의 쓰기능력 발달을 살펴본 연구들은 분명한 연령 차이를 보고하였다(E. Choi & J. Lee, 2010; Ferreiro, 1991; Gentry, 1982; Kamii & Manning, 2002; E. Kim, 2010; K. Kwak & Y. Kim, 2014; K. Lee, S. Kim, & J. Jung, 2010; Y. Noh, 1994; M. Oh & S. Chae, 2010)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은 어른의 도움이 없이는 읽기와 쓰기에 대한 관계와 철자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쓰기는 음성기호와 철자법의 규칙을 이해해야 하는 활동으로, 쓰기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음운 인식과 음소 배치에 대한 지식과 기술이 필수적이다(Goswami, 2002; Shatil, Share, & Levin, 2000). 즉, 쓰기는 유아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습득할 수 없는 활동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며, 부모는 자녀의 쓰기를 격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Aram,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의 문해 신념과 가정에서의 문해 지도는 유아의 초기 문해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 Lee & M. Kim, 2011). DeBaryshe(1993, 1995), Galper, Wigfield, and Seefeldt(1997), 그리고 Sigel, McGillicuddy-DeLisi, and Goodnow(1992) 등은 가정의 문해환경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 특히 부모의 신념이 중요하며, 이러한 문해신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부모의 신념이란 자녀와 교육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믿음으로 양육 행동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유아의 성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문해신념은 문해환경 및 문해와 관련된 지도 행동에 영향을 주며, 유아의 문해 발달에까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발현적 문해 관점을 가진 부모들은 즐겁게 책읽기를 강조한 반면, 전통적인 관점을 가진 부모들은 철자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강조하여 부모의 신념에 따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났다(Anderson, 1995).

이처럼 쓰기에 대한 태도 등 어머니의 문해신념은 가정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문해 활동, 즉, 지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J. Kim & M. Lee, 2005; H. Kwon & J. Song, 2000; J. Song & S. Song, 2006). 가정에서 부모가 유아에게 쓰기를 촉진시키기 위한 환경과 쓰기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쓰기 활동을 격려하고 직접 지도하는 것은 유아의 쓰기능력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H. Kim, 2015). Aram and Levin(2002)이 저소득층 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어머니와 함께 하는 쓰기 활동의 효과를 연구한 결과, 어머니의 쓰기 상호작용은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을 예측하는 중요 변인이었다. 또한 가정에서의 문해 학습과 책 읽기가 유아의 발현적 쓰기능력을 설명하는 가운데, 특히 유아에게 놀이와 일상생활을 통해 철자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고 흉내 글자나 창안적 글자를 써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C. Park & G. Kim, 2015). 그리고 쓰기 지도 방법에 따라 유아의 쓰기능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만 4세의 경우 책을 활용하거나 목적을 가지고 자유롭게 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 때 쓰기능력 발달 수준이 높았고, 만 5세아들은 풍부한 문해환경을 제공하고 자유롭게 쓰기를 할 수 있게 하면서, 부모의 적절한 지도가 있었을 때 쓰기능력이 우수했다(M. Lee, 2004). 부모가 환경인쇄물을 활용하여 유아의 문해 발달을 지원하는 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쓰기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 Kim, 2015). Senechal and LeFever(2002)도 부모의 쓰기 지도 빈도와 유아의 창안적 쓰기능력이 정적 관계가 있다고 밝히며 부모의 쓰기 지도가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한편, 부모의 쓰기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정에서 부모는 유아가 철자법에 맞게 쓰도록 지시하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고, 쓰는 과정에서 유아와 철자 위주의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M. Jeong & M. Kim, 1997; J. Jeong, 2014; M. Kim, 1999). 그러나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맞춤법을 강조하고 쓰기의 기술적 순서나 자모 이름을 알도록 성인이 통제하기보다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표현해내고 재구성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롭게 선, 글자나 창안적 철자를 쓰게 하고, 그 글로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경험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유아가 쓴 것에 대해 어머니가 의도나 내용을 인정하고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눌수록 유아의 쓰기능력이 높았다(J. Jeong, 2014).

이와 같은 가정에서의 쓰기 지도는 쓰기자료의 활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문해 지도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도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모가 영유아에게 적절한 문해 학습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하고, 놀이 상황이나 일상 속에서 철자의 이름과 형태에 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흉내 글자나 창안적 글자를 써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Makin & Whitehead, 2004; C. Park & G. Kim, 2015). 그러나 가정의 현실에서는 학습지, 단어카드, 단어장, 스티커로 낱말 익히기 등과 같이 유아에게 친숙하지 않으며 반복적 훈련과 암기를 통한 교육과 시판중인 교재 활동, 자모, 단어, 문장의 반복적 쓰기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M. Kim, 1999). 가정문해환

경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하위 영역으로서 문해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만, 유아를 위한 도서 환경에 주로 초점을 둔 반면 쓰기를 위한 도구들은 비중 있게 다루지 않으며, 그나마 쓰기 자료의 비치 여부에 관심이 있을 뿐 실제적인 사용 빈도는 살펴보지 않아 문제시된다.

지금까지 부모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과 유아의 쓰기 능력에 대한 연구들을 고찰해 보았지만, 읽기능력과 비교하여 쓰기능력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역할 관련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Aram & Levin, 2002; Burns & Casbergue, 1992; Hood & Conlon, 2008; Justice & Ezell, 2000; Roberts, 2010; Senechal, 2006; J. Sim & S. Pae, 2016; E. Yun, 2007). 유아의 쓰기 발달에 있어 성인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자녀의 쓰기 활동 시 어머니와 유아 간의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M. Jeong & M. Kim, 1997; J. Jeong, 2014; M. Kim, 1999), 혹은 환경인쇄물 활용 등의 구체적인 지도법(H. Kim, 2015; M. Lee, 2004; Neumann et al., 2011; Neumann & Neumann, 2010)을 살펴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쓰기와 관련하여 어머니가 수행하는 역할을 상호작용 또는 지도방법에 국한하여 살펴보았다. 유아의 쓰기 발달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크고, 상업적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쓰기 교육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보다 폭넓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 변인인 신념부터 실제적 수행과 관련된 가정에서의 쓰기 지도 및 쓰기 자료의 활용까지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변인이 유아의 쓰기능력과 직결되는지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론적으로 유아의 발달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발현적 문해뿐만 아니라, 형식적 학교교육과 관련된 관습적 문해를 함께 고려하여 접근해야 최근에 이루어지는 문해 교육의 현실을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을 발현적, 관습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이 변인들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연령에 따라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 간에 상관이 있는가?

<연구문제 3>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서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에서 임의 표집한 총 17개 유아교육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만 3, 4, 5세 유아 총 450명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어머니용 질문지와 유아의 쓰기검사 자료의 짝을 맞추어 일부 답변이 누락된 10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총 440쌍의 자료를 최종 분석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쓰기능력에 대해서는 바닥효과가 나타난 만 3세를 제외하고 만 4, 5세아 총 35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집단별 성별 분포 및 평균 월령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2. 연구 도구

1) 쓰기에 관한 어머니 신념

유아의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조사하기 위해 H. Jo(2003)와 H. Lee(2011)의 연구를 참고로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원척도의 문항들 중에서 내용에 따라 발현적 쓰기(예-'부모는 유아의 쓰기 발달에 모델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와 관습적 쓰기(예-'쓰기 발달을 위해 아이가 한글 학습지를 가능한 한 어릴 때 시작하여 꾸준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에 대한 문항들을 골라 각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발현적, 관습적 쓰기에 관한 신념이 강한 것을 뜻한다. 이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발현적 쓰기 .66, 관습적 쓰기 .77로 나타났다.

2) 쓰기 지도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쓰기를 지도하는 방식과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H. Jo(2003)와 H. Lee(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역시 발현적 쓰기(예-'아이가 일상생활이나 놀이 중에 쪽지나 편지를 써보도록 격려한다.', '아이와 함께, 또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장보러 가기 전 구입할 물건을 적는다.' 등)와 관습적 쓰기(예-'아이가 자음, 모음이나 몇 개의 단어를 종이에 반복해서 써보게 한다.')에 대한 내용을 각 7문항씩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어머니가 유아에게 발현적 또는 관습적 쓰기 지도 행동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subjects (N=440)

Variables			Frequency	%			
Children	Age /Gender	3 years (51.73 months)	Boys	45	52.7		
			Girls	41	47.3		
		4 years (61.34 months)	Boys	91	46.0		
			Girls	107	54.0		
		5 years (72 months)	Boys	84	53.8		
			Girls	72	46.2		
		Mothers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graduates		1	2
				high school graduates		99	22.5
				college/university graduates		308	70.0
				master degree		12	2.7
doctoral degree				1	2		
no answer				19	4.3		
Monthly family income (10,000 KW)	- 199				17	3.9	
	200 - 299				54	12.3	
	300 - 399				116	26.4	
	400 - 499				80	18.2	
	500 - 599		65	14.8			
	600 - 699		43	9.8			
	700 - 799		18	4.1			
	800 - no answer		21	4.8			
		26	5.9				

많이 함을 뜻한다. 신뢰도(Cronbach's α)는 발현적 쓰기 지도 .76, 관습적 쓰기 지도 .75로 나타났다.

3) 쓰기 자료 활용

본 연구에서 쓰기 자료는 유아의 쓰기 발달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자료를 의미한다. 가정에서 유아가 다양한 쓰기 자료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H. Jo(2003)의 연구를 참고하여 발현적 자료 활용(예 - '그림책 등 유아용 도서')과 관습적 자료 활용(예 - '시판되는 학습지나 한글 교육 책자')에 대한 각 10문항씩, 총 20문항으로 본 연구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자주 활용한다'(4점)까지의 Likert 4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에서 어머니가 각 요인의 자료를 많이 활용함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Cronbach's α 는 발현적 자료 활용 .72, 관습적 자료 활용 .76이었다.

4) 유아 쓰기능력

유아의 쓰기능력은 O. Park(2013), N. Choi(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이름 쓰기, 단어 쓰기, 편지 쓰기 세 가지 유형으로 검사하고 점수를 합산하였다. 이름 쓰기는 각 유아에게 A4용지와 연필을 주고 자신의 이름을 써 보도록 하였고, 단어는 '곰', '나비', '자전거', '미끄럼틀'의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말해본 후 빈 칸에 쓰게 하였다. 편지 쓰기는 3분 동안 역시 A4용지에 부모님께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쓰도록 하였다. 각 채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이름 쓰기

선행연구들(Bloodgood, 1999; Fox & Saracho, 1990; Hidreth, 1936; Lieberman, 1985; Welsh, Sullivan, & Justice, 2003; Y. Kim & Y. Lim, 2006)의 연구를 기초로 N. Choi(2009)가 한글 쓰기에 적합하도록 네 수준, 하위 여덟 단계로 구성된 이름 쓰기 발달 단계를 사용하였다. 각 하위 수준마다 1점씩으로 채점하여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8점이다.(예 - '쓰지 못함', '아무렇게나 끼적거리기', '선형으로 끼적거리기', '분리된 단위의 글자 쓰기', '잘못된 이름으로 쓰기', '이름은 쓰지 못하지만 유사 자모 또는 한글 자모가 나타남', '이름을 대체적으로 또는 완전히 맞게 씀', '성과 이름을 모두 적절한 크기와 비율로 올바르게 씀')

(2) 단어 쓰기 및 편지 쓰기

Y. Lee and J. Lee(1990), M. Lee(1997), S. Cho and N. Woo(2004), IRA and NAEYC(1998), Sulzby(1985)를

참고하여 수정·보완한 N. Choi(2009)의 한글에 적합한 쓰기 발달 단계를 다섯 수준, 하위 열 단계로 설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단계가 곧 점수가 되어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1-10점이다. 1단계는 쓰기 대신 그리기만 나타남, 2단계는 수직선, 수평선, 또는 곡선으로 굵적거리기, 3단계는 유사자모가 나타나는 단계이다. 1~3단계는 모두 한글의 자모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 '비자모' 수준이다. 독립적인 한글 자음이나 모음이 나타나는 4단계와, 자모를 결합하는 시도는 나타나지만 올바르게 쓴 경우인 5단계는 '자모' 수준에 해당한다. 6단계에서는 자모가 올바르게 합성되거나 단어를 이루지는 않고, 7단계에서 비록 철자는 틀리더라도 단어를 쓰는 시도가 나타난다. 이 두 단계는 '자모 결합' 수준으로 명명하였다. 철자까지 맞게 쓴 완전한 단어를 쓰는 8단계와 불완전한 문장을 쓰는 시도가 나타나는 9단계는 '단어' 수준이다. 마지막으로 '문장' 수준에 해당하는 10단계는 철자와 구두점까지 포함해 완전히 올바르게 문장을 쓰는 경우를 말한다. 한글 표기의 형식을 따르는 6~10단계는 관습적 단계로, 글자 단위가 아직 나타나지 않는 1~5단계는 발현적 단계로 크게 구분하였다.

3. 연구 절차

각 기관의 원장과 교사들에게 연구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학부모용 연구동의서를 포함한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질문지를 통해 각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어머니의 신념, 쓰기 지도 및 자료 활용 정도를 조사하였다. 또한 아동학 전공 석·박사 과정생 총 4명이 검사방법 숙지 후 각 기관을 방문하여 대상 학급의 전체 유아들을 대상으로 쓰기 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는 도서실, 자료실 등의 조용한 공간에서 이름 쓰기, 단어 쓰기, 편지 쓰기의 순서로 일대일로 이루어졌다. 쓰기 검사는 각 유아에 대해 약 5분 정도씩 소요되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문항 간 내적 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유아의 쓰기능력 검사 결과는 채점 기준에 따라 연구자 2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채점하고 점수가 서로 다른 극소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점수를 산출하였다.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독립-t검정과 F검정 및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았

다. 마지막으로, 변수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유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 차이

먼저, 유아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첫째, 어머니의 쓰기 신념에서, 발현적 쓰기에 대해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관습적 쓰기에 대해서는 3세 17.63($SD = 3.67$), 4세 18.96($SD = 3.94$), 5세 19.32($SD = 3.49$)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 강한 신념이 나타났다. 이 중, 3세와 4세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다($F = 5.94, p < .01$). 이는 3세에서 4세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관습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현저하게 강화됨을 보여준다.

둘째, 어머니의 쓰기 지도의 경우, 발현적 쓰기 지도에서 3세 16.50($SD = 3.71$), 4세 18.16($SD = 3.54$), 5세 18.69($SD = 3.70$)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세 보다 4, 5세아에 대해 어머니가 발현적 쓰기 지도를 더 많이 함을 알 수 있었다($F = 12.70, p < .001$). 관습적 쓰기 지도 역시, 3세 13.80($SD = 4.01$), 4세 16.18($SD = 3.81$), 5세 17.96($SD = 3.75$)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연령이 증가할수록 관습적 지도를 점점 더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F = 32.94, p < .001$). 관습적 쓰기 지도는 3, 4, 5세 간의 집단 구분이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에서 어머니의 쓰기 지도가 점차 더 풍부하게 이루어지며, 관습적 방식보다는 발현적 방식이 더 일찍부터 많이 적용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쓰기 자료 활용의 경우, 발현적 쓰기 자료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관습적 쓰기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는 3세 21.88($SD = 5.55$), 4세 24.19($SD = 4.82$), 5세 24.67($SD = 5.46$)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4, 5세아들과 달리 3세아들에게는 관습적 쓰기 자료를 덜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F = 8.47, p < .001$). (<Table 2> 참조).

2. 어머니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의 상관관계

발현적·관습적 쓰기에 관한 어머니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전에 하위 요인들을 포함하여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Table 2.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guidance,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for writing according to children's age (N=440)

variables	3-year-olds (n = 86)	4-year-olds (n = 198)	5-year-olds (n = 156)	Total	F	Scheffé	
	M(SD)	M(SD)	M(SD)	M(SD)			
beliefs	emergent	23.95(2.47)	24.07(2.45)	23.43(2.98)	18.82(3.77)	2.59	
	conventional	17.63(3.67)	18.96(3.94)	19.32(3.49)	18.82(3.77)	5.94**	a < b
guidance	emergent	16.50(3.71)	18.16(3.54)	18.69(3.70)	23.91(5.29)	12.70***	a < b
	conventional	13.80(4.01)	16.18(3.81)	17.96(3.75)	16.34(4.10)	32.94***	a < b < c
use of resources	emergent	29.06(4.88)	30.03(4.31)	29.99(4.51)	29.83(4.50)	1.56	
	conventional	21.88(5.55)	24.19(4.82)	24.67(5.46)	29.99(4.50)	8.47***	a < b

p < .01, *p < .001. (Note. a=3-year-olds, b=4-year-olds, c=5-year-olds)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maternal beliefs, guidance, and use of resources for writing (N=440)

variables	1	2	3	4	5	6
1. Belief in emergent writing	-					
2. Belief in conventional writing	.28***	-				
3. Emergent writing guidance	.34***	.24***	-			
4. Conventional writing guidance	.18**	.54***	.52***	-		
5. Use of emergent writing resources	.23**	.14*	.54***	.29***	-	
6.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07	.40***	.36***	.62***	.48***	-

p < .01, *p < .001.

먼저, 발현적-관습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간에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r = .28, p < .001$). 그리고 발현적-관습적 쓰기 지도($r = .52, p < .001$)와, 발현적-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 간($r = .48, p < .001$)에도 높은 수준의 상관이 있었다. 따라서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 내에서 발현적-관습적 영역 간에 강한 상관이 있어 서로 배치되는 영역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발현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발현적 쓰기 지도($r = .34, p < .001$),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r = .23, p < .001$)뿐만 아니라, 관습적 쓰기에 대한 신념($r = .28, p < .001$) 및 관습적 쓰기 지도($r = .18, p < .001$)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관습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도 관습적 쓰기 지도($r = .54, p < .001$),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r = .40, p < .001$)뿐만 아니라, 발현적 쓰기 지도($r = .24, p < .001$),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r = .14, p < .01$)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즉,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이 가정에서의 쓰기 지도 및 쓰기 자료 활용과 상관을 보이는 가운데, 발현적-관습적 영역을 넘어서도 그 상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발현적 쓰기에 대한 신념은 발현적 쓰기 지도 및 쓰기 자료 활용과, 관습적 쓰기에 대한 신념은 관습적 쓰기 지도 및 쓰기 자

료 활용과 더 높은 상관 수준을 보인 것이 중요하다. 상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 중에서 유일하게 발현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 간에 상관이 전혀 없었다. 또한 관습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 간에도 상관이 매우 낮았다($r = .14, p < .01$).

다음으로, 어머니의 발현적 쓰기 지도는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r = .54, p < .001$),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r = .36, p < .001$)과 높은 수준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관습적 쓰기 지도 역시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r = .29, p < .001$),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r = .62, p < .001$)과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부분에서도 비록 통계적 유의도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발현적 쓰기 지도는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과, 관습적 쓰기 지도는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과 훨씬 더 높은 상관계수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하면,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 간에는 강한 상관이 있으며, 이는 통계적 유의도 면에서는 발현적 쓰기와 관습적 쓰기의 영역을 상당 부분 넘나드나, 상관수치를 볼 때 발현적-관습적 영역이 분명히 구분됨을 알 수 있다(<Table 3> 참조).

3.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이상에서 살펴본 상관분석을 통해 발현적-관습적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을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고 그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상의 문제 여부를 파악한 결과, VIF는 10 이하(1.06 - 1.77)를 보여 다중공선상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Dubin-Watson 지수는 1.824로 잔차 간 자기 상관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발현적, 관습적 쓰기 각각에 관한 어머니의 인식, 지도, 자료 활용, 총 6개의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설명력을 갖는 변수를 찾는 단계투입 방식(Stepwise)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최종 모형은 유아 쓰기능력의 총 2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발현적 쓰기 지도'가 22%의 설명력을 가지며,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이 부적으로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2% 증가하였다. '관습적 쓰기 지도'가 추가되어 다시 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마지막으로,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이 추가되어 다시 2%의 설명력이 증가되었다. 어머니의 신념 요인 두 개는 회귀식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발현적 쓰기 지도, 관습적 쓰기 자료의 미 활용, 관습적 쓰기 지도,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 순으로 유아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가정에서 발현적 방식으로 유아에게 쓰기 지도를 하는 것이 쓰기능력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에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은 직접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발현적-관습적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에 있어서 만 3, 4, 5세 유아의 연령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세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쓰기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만 4, 5세 유아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이용해 결론을 내리고 그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현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과 발현적 쓰기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관습적 쓰기에 대한 신념,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 및 종합적인 쓰기 지도에 있어서는 유아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어머니들은 관습적 쓰기에 대한 더 강한 신념을 보인다. 이 중, 3세와 4세 사이에서 유의한 집단 구분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교육방법의 비중이 바뀌을 시사한 Wortham(1998)의 주장이나 어머니들이 유아를 위한 쓰기 지도 시기를 만 4세부터라고 인식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S. Hong & Y. Ahn, 2003; J. Kang & J. An, 2008; J. Lee, 2010; E. Park & S. Park, 2014)과 일맥상통한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에서는 만 4, 5세 학급에서 발현적, 관습적 문해활동의 종류별 실시 정도가 유사하며, 활동의 중요도 역시 연령과 상관없이 비슷하다고 인식하였다(N. Choi, 2016). 실제로 영유아들의 문해 발달 양상을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도 더 어린 영유아와는 달리 만 4세 때 문해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만 4세와 5세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다

Table 4. Influences of maternal beliefs, guidance,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for writing on children's writing ability (N=354)

	models	B	β	R	F	adjusted R ²	ΔR^2
1	Emergent writing guidance	.880	.20***	.48	51.042***	.22	
2	Emergent writing guidance	1.06	.25***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44	-.14**	.49	37.656***	.24	.02
3	Emergent writing guidance	.78	.18***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74	-.24***				
	Conventional writing guidance	.80	.20*	.51	31.323***	.26	.02
4	Emergent writing guidance	.42	.10***				
	Use of conventional writing resources	-.93	-.30***				
	Conventional writing guidance	.93	.23***				
	Use of emergent writing resources	.56	.16***	.53	26.933***	.27	.01

*** $p < .001$.

(H. Cho & H. Lee, 2012; Hiebert, 1981; E. Park, J. Kim, & S. Park, 2013). 즉, 유아들의 문해 발달 양상이 비교적 빠른 문화적 특성상, 만 4세 이후의 문해 발달 결과뿐 아니라 교사의 인식에서도 연령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C. Kim and M. Kim(2006)은 부모들이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문자 관련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인식하여 유아들에게 쓰기를 지도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보면, 어머니들은 만 4세경부터 관습적 방식의 쓰기가 중요하다고 여감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발현적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연령집단 간에 차이가 없어, 발현적 방식의 문해가 어린 영아들에게 뿐만 아니라 유아기 전체를 관통하여 적합한 방식임을 시사한다. 발현적 문해는 관습적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심지어 출생 이후부터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발달한다(Y. Kim, E. Ham, & Y. Kim, 2003; Neumann et al., 2011; Teal & Sulzby, 1986). 영유아들은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언어 환경에 노출되며 읽기와 쓰기도 경험하는데, 이러한 방식은 암묵적이고 실제적이어서 효과가 크다(E. Oh, S. Kang, H. Park, E. Ko, & J. Lee, 2013; M. Lee et al., 2014; S. Lee et al., 2014; C. Park, N. Jeong, & H. Kwak, 2016). 유아의 쓰기 활동물을 분석한 연구들은 유아의 쓰기가 발현적 과정을 통해 발달하며 유아들의 일상생활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따라서 실제 생활 맥락과 동떨어진 쓰기 교육은 유아에게 의미가 없어 자발성을 억제시킨다고 하였다(E. Kim & S. Kwak, 2016; C. Sung, 2004). 유아의 문해 발달은 사회의 문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유아 스스로 능동적으로 구성해나가는 것으로 이해된다(S. Jo & N. Woo, 2004). 즉, 유아의 문해 발달은 형식적인 교육과 상관없이 연속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 어머니들이 유아기 발현적 쓰기에 대한 일정한 신념을 보인 것은 이에 대한 이해가 반영된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유아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정에서 발현적, 관습적 쓰기 지도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현적 쓰기 지도는 만 3세만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이었으나, 관습적 쓰기 지도는 유아의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더 많이 실시하는 모습이었다.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H. Jo(2003)의 연구에서도 만 4-5세 간의 쓰기교육 방식이 달라지고 연령 증가에 따라 쓰기교육이 더 많이 이루어짐을 보여준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연령 증가에 따라 문해교육과정이 달라지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유아의 연령에 따라 쓰기 지도의 양적, 질적 방식이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발현적 쓰기 자료의 활용에서는 연령차가 없으나, 관습적 쓰기 자료는 만 4세 이후에 더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림책과 같은 자료는 유아기 전반에 걸쳐 많이 활용되나, 한글 지도용 학습지나 쓰기 책자 등의 자료는 만 4세 이후에 많이 쓰이기 시작함을 의미한다. 어머니들이 유아의 문해 습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신념과 동시에 기술적인 교육방법의 필요성도 인식함을 보여준 J. Kim and M. Lee(2005)의 연구가 본 연구의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본다. 그리고 역시 초등학교 입학시기가 가까워지면서 학교준비도의 일환으로 유아의 쓰기 준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관습적 쓰기 자료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K. Lee, Y. Jang, M. Jung, and Y. Hong(2002)는 어머니들이 자녀의 학업 성취에 대한 염려로 너무 어린 시기부터 검증되지 않은 한글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우려하였다. 만 4세 무렵부터 가정에서 관습적 쓰기 자료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유아의 동기와 맞지 않는 쓰기 지도가 과도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 간에는 강한 정적 상관이 있고, 이는 발현적, 관습적 영역을 넘을 때보다 그 테두리 안에서 더 두드러진다. 즉,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에 따라 가정에서의 쓰기 지도와 쓰기 자료 활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발현적 신념은 발현적인 쓰기 지도 및 자료 활용과 상관이 높고, 관습적 쓰기 신념은 관습적 쓰기 지도 및 자료 활용과 강한 상관이 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신념이 유아와의 상호작용 및 가정의 교육환경, 교육방법, 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Furnham, Rakow, & Mak, 2002; Galper et al., 1997). 이에 따라 어머니의 문해 신념과 태도 역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문해 활동의 질과 활동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Anderson, 1995; DeBaryshe, 1995; Ficzerald, Spiegel, & Cunningham, 1991; J. Song & S. Song, 2006). 특히 본 연구에서 쓰기에 대한 발현적 신념과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 간에 상관이 전혀 없고, 쓰기에 대한 관습적 신념과 발현적 자료 활용 간의 상관이 매우 미미하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다만 발현적-관습적 영역을 넘어서도 어머니의 신념과 지도, 자료 활용 간의 상관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유아기에 발현적 쓰기와 관습적 쓰기가 명확히 갈라지는 서로 다른 틀이 아니라 균형적 접근에 따라 둘 다 필요한 부분임을 보여주는 현실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다른 영역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쓰기 발달에서도 유아의 개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쓰기의 어려움을 느끼는 유아들에게 균형적 언어활동을 적용함으로써 구어와 문자의 관계를 인식시킬 수 있고 쓰기 발달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S. Kim & S. Ma, 2014). S. Noh(2012)의 연구에서도 균형적 언어교육 접근법에 기초한 문해 활동 적용에 따라 글자를 모르던 만 4세 유아들이 점차 쓰기에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 경우, 반복적, 기계적인 지루한 쓰기를 배제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의미 있는 맥락 속에서 놀이로서의 쓰기 활동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또한 J. Sim and S. Pae(2016)은 유아에게 정확하게 쓰는 관습적 쓰기 수준으로 접근하기보다 실험적 쓰기 단계에서 점차 전환적 쓰기 단계를 거쳐 관습적 쓰기의 단계로 진보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아들에게 관습적 방식의 쓰기를 적용하더라도 발달적으로 적합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균형적 접근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만 4, 5세 유아의 쓰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발현적-관습적 쓰기 지도와, 발현적 쓰기 자료 활용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습적 쓰기 자료 활용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쓰기를 지도하는 행동의 영향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M. Lee(2004)의 연구에서는 학원에서 쓰기를 연습한 유아의 발달이 가장 낮은 수준인 반면, 어머니가 쓰기를 지도했을 때 유아의 쓰기 형태가 가장 많이 발달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발현적인 방식의 쓰기 지도가 유아의 쓰기능력에 대한 설명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흥미롭다.

쓰기 자료 활용이 유아의 쓰기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는 매우 미흡하나, 그 관련성은 강조되어 왔다. S. Noh(2012)는 유아들에게 다양하고 풍부하며 매력적인 필기도구와 종이류를 제공함으로써 유아들의 관심이 증가하여 읽기와 쓰기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S. Lee and B. Lee(2009)도 언어영역에서 쓰기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양질의 다양한 문해 자료가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문해환경이 풍부할 때 유아는 쓰기에 대한 자극을 받아 놀이에 필요한 쓰기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다양한 매체를 사용하면서 쓰기에 흥미를 갖게 된다(Cindy D'On, 2015; E. Kim & S. Ahn, 2009; Makin & Whitehead, 2004). 가정에서 유아의 끼적이기를 격려해주지 않고, 실내를 더럽히는 행동으로 치부하면 발현적 쓰기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발현적 문해 발달의 입장에서는 유아가 자유롭게 쓰기 자료를 탐색하면서 끼적이는 행동을 통해 쓰기가 발

달하므로, 이와 관련된 부모의 문해 신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나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이러한 변인들과 상관이 있을 뿐, 유아의 쓰기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변인인 신념이 쓰기 지도와 자료 활용이라는 행동에 영향을 주어 유아의 쓰기 능력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간접효과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 차별화된 분석방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을 위해 관습적 쓰기 자료의 활용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E. Kim(2010)은 바람직한 문해 발달이 이루어지려면 균형 잡힌 지도가 필요한데, 문자를 다루는 재미있고 체계적인 활동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M. Kim, M. Lee, and J. Yoo(2013)은 역시 유아가 단어를 읽고 쓰는 법에 대해 반복적인 훈련을 하고 음운과 철자에 대해 단순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환경인쇄물과 같은 친숙한 경로를 통해 철자의 이름과 형태를 접하고 이에 대해 자발적인 관심을 가지며 성인의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해 문해 경험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 쓰기능력의 발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이처럼 환경인쇄물이 유아의 쓰기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집단 비교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다(Neumann, Hood, & Ford, 2013). 이러한 방식의 자연스러운 접근을 통해 글자에 대한 관심이나 동기까지도 높아져 실질적 능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M. Lee(2004)은 유아가 글자공부책이나 학습지, 낱말카드 등을 통해 쓰기 학습을 하는 것보다 일기나 편지 등을 자유롭게 쓰거나 책 읽기로 쓰기 학습을 하는 경우가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어린 시기부터 한글 학습지를 하는 것이 유아의 쓰기 발달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나타나, 우리 사회의 부모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구들도 있다. McGee and Richgel(2011), McGuinness(1997)는 유아에게 주입식의 상향식 문자언어 학습이나 베껴 쓰기 같은 방법으로 쓰기를 지도하는 것은 실생활과 동떨어진 언어지식을 가르치고 쓰기의 활용을 제대로 익히지 못하게 만들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였다. C. Kim and M. Kim(2006), T. Song(2004), C. Lee(1999)은 의미 없는 글자를 반복적으로 읽고, 베껴 쓰는 행동은 유아에게 무의미하여 흥미 유발이 되지 않다고 지적하였고, J. You(1999)도 유아의 쓰기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거나, 발달 수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강요하면 이후의 쓰기 학습의 의욕 저하 뿐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자발적

이며 창의적인 흥미까지 잃어버리게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반복 학습과 강제적인 지도보다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쓰기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을 위해서는 유아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자연스러운 언어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E. Yun, 2007), 보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의 말이 쓰기로 이어지게 하고, 유아가 성인의 쓰기를 관찰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교수자원을 통해 수준에 맞는 수준의 쓰기를 시도하고, 부모와 함께 다양한 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견해(Y. Jeon, 2013)가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유아기에 발현적-관습적인 쓰기 지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이며 합당하나, 자료 활용에 있어서는 관습적인 방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유아들에게 흥미 있고 수준에 맞는, 발달에 적합한 자료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접근방법과 다르게 유아의 쓰기를 발현적-관습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유아 연령 집단에 따라 어머니의 쓰기 관련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달라짐과, 어머니의 쓰기 신념과 지도, 자료 활용 간에 관계가 있는 가운데 발현적-관습적 쓰기 영역이 서로 구분됨을 보여주었으며, 발현적-관습적 쓰기 지도가 모두 유아의 쓰기능력 발달에 영향을 주나 관습적인 쓰기 자료의 활용은 부정적 효과를 가짐을 증명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지닌 제한점을 밝히고, 그에 따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만 3, 4, 5세 유아들을 동시에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들의 신념과 지도, 자료 활용에 있어서 연령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횡단적 접근을 통해서 신념, 지도, 자료 활용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는지, 대상 유아 이외의 형제자매로 인한 차이는 없는지 등은 분석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므로 문제시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도 고려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질문지로 조사한 방식은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신념을 조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면담 등의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쓰기에 대한 어머니의 생각을 알아보는 연구방식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일대일 검사를 통해 유아의 쓰기능력을 측정하였으나, 보다 자연스러운 측정을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평가와 같이, 평소에 유아들이 쓴 자료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으로 본다.

REFERENCES

- Aram, D. (2010). Writing with young children: a comparison of paternal and maternal guidance. *Journal of Research in Reading*, 33(1), 4-19.
- Aram, D., & Levin, I. (2002). Mother-child joint writing and storybook reading: Relations with literacy among low SES kindergartners. *Merill-Palmer Quarterly*, 48(2), 202-224.
- Anderson, J. (1995). How parent's perceptions of literacy acquisition relate to their children's emergent literacy knowledge. *Reading Horizons*, 35(3), 209-228.
- Bloodgood, J. W. (1999). What's in a name? children's name writing and literacy acquisition. *Reading Research Quarterly*, 34, 342-367.
- Burns, M. S., & Casbergue, R. (1992). Parent-child interaction in a litter-writing context.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4(3), 289-312.
- Cho, H. S., & Lee, K. H. (2012). An analysis on four-year-old children's spontaneous writing in the classroom.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32(4), 493-523.
- Cho, S. H., & Woo, N. H. (2004).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vented spelling for Korean children.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315-340.
- Choi, E. Y., & Lee, J. H. (2010). Analysis of structural equation modelling on relationships among young children's early literacy skills, word reading, and word writing.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5(5), 405-435.
- Choi, N. Y. (2009). Children's writing development and Korean alphabet knowledge: Kindergartners' random writing and name writ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9(6), 67-89.
- Choi, N. Y. (201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cale on young children's preferences for literacy activities. *The Korea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in Printing)
- Chomsky, C. (1971). Write first, read later. *Childhood Education*, 47(6), 296-299.
- Cindy D'On, J. (2015). Effects of writing instruction on kindergarten students' writing achievement: An experimental study.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8(1), 35-44.
- DeBaryshe, B. D. (1993). Joint picture book reading cor-

- relates of early oral language skills. *Journal of Child Language*, 20(2), 455-461.
- DeBaryshe, B. D. (1995). Maternal belief systems: Linchpin in the home reading process.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16, 1-20.
- Ferreiro, E. (1991). *Psychological and epistemological problems on written representation of language*. In M. Carretero, M. Pope, R. Simons, J. & Pozo, (Eds.), *Learning and instruction. European research in an international context* (pp.157-173). Oxford, UK: Pergamon Press.
- Fitzgerald, J., Spiegel, D. L., & Cunningham, J. W. (199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literacy level and perception of emergent literacy. *Journal of Reading Behavior*, 23(2), 191-213.
- Fox, B. J., & Saracho, O. N. (1990). Emergent writing: young children solving the written language puzzle. *Early Child Development and Care*, 56, 81-90.
- Furnham, A., Rakow, T., & Mak, T. (2002). The determinants of parents about the intelligence of their children: A study from Hong Kong.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7(6), 343-352.
- Galper, A., Wigfield, A., & Seefeldt, C. (1997). Head start parents' beliefs about their children's abilities, task, values, and performances on different activities. *Child Development*, 68(5), 897-907.
- Gentry, J. R. (1982). An analysis of developmental spelling in "GYNS AT WAK". *Reading Teacher*, 36(2), 192-200.
- Goswami, U. (2002). Phonology, reading development, and dyslexia: Across-linguistic perspective. *Annals of Dyslexia*, 52(1), 139-163.
- Han, Y. M., Kim, H. S., Kwon, H. K., Yang, Y. S., & Beak, E. J. (2013).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3rd ed.). Seoul: Hakjisa.
- Hiderth, G. (1936). Developmental sequences in name writing. *Child Development*, 7, 291-303.
- Hiebert, E. H. (1981). Developmental patterns and inter-relationship of preschool children print awareness. *Reading Research Quarterly*, 16(2), 236-260.
- Hong, S. O., & Ahn, Y. H. (2003). A survey study on the guidance of reading and writing for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2, 195-214.
- Hood, M., Conlon, E., & Andrews, G. (2008). Preschool home literacy practices and children's literacy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 psychology*, 100(2), 252-271.
-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1998). *Learning to read and write: Developmentally Appropriate Practices for young children*. *The Reading Teacher*, 52(2), 193-216.
- Jeon, Y. Y. (2013). The effects of language education program for young children based on the balanced approach on language attitude and abilit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8(2), 1-32.
- Jeong, J. W. (2014).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child verbal and nonverbal behaviors in a letter-writing contex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eong, M. R., & Kim, M. S. (1997). Research : Mother's language and types of literacy information in a letter-writing contex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5(4), 125-137.
- Jo, H. S. (2003).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teachers and parents about reading & writing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Jo, S. H., & Woo, N. H. (2004). The developmental process of invented spelling for Korean children.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1), 315-340.
- Justice, L. M., & Ezell, H. K. (2000). Enhancing children's print and word awareness through home-based parent intervention. *American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9, 257-269.
- Kamii, C., & Manning, M. (2002). Phonemic awareness and beginning reading and writing. *Journal of Research in Childhood Education*, 17(1), 38-46.
- Kang, J. W., & An, J. Y. (2008). The preschooler's writing development, mother's perception of their writing ability and the status of the writing instruction at hom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2(4), 5-24.
- Kim, C. B., & Kim, M. J. (2006). The realities of reading and writing instruction in kindergarten and factors influencing the curricular goal setting Proces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2), 279-304.
- Kim, E. Y. (2010). *(The) effects of phonological awareness and concept about print on the children's writing*

- abil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 Kim, E. Y., & Ahn, S. H. (2009). A study on preschool children's emerging writing activities within free-choice activities and preschool classroom environment of literacy.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4(5), 325-345.
- Kim, E. M., & Kwak, S. J. (2016). A study on writing experience in free play activity of five-year-old childre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8(2), 225-254.
- Kim, H. J. (2015). *Relationship among parents' literacy behavior, children's story comprehension, and writing 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H. W. (2014).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drawing and writing of kindergarteners: changes over time.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18(5), 403-425.
- Kim, J. H., & Lee, M. J. (2005). Mother's beliefs about literacy acquisition. *Korea Journal of Child Care and Education*, 42, 21-40.
- Kim, M. S. (1999). Mother's belief in the reading and writing development of young children and home literacy environment. *Yonsei Journal of Human Ecology*, 13, 120-131.
- Kim, M. S., Lee, M. J., & Yoo, J. Y.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choolers' emergent literacy ability and writing development. *Journal of Parent Education*, 5(2), 1-16.
- Kim, S. Y. (2002). Four and five year old children's perception of the functions of writing.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2), 155-172.
- Kim, S. Y., & Ma, S. H. (2014). Young children's comprehension, reading and writing ability: The effects of balanced language activities using picture book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9(2), 47-66.
- Kim, Y. S., Ham, E. S., & Kim, Y. R. (2003). Children's computer and pencil writing 1. *The Journal Of Children's Media*, 2, 1-17.
- Kim, Y. S., & Lim, Y. K. (2006). Children's perception of name letters.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1), 217-235.
- Kwak, K. H., & Kim, Y. S. (2014). Analysis of 3 and 4 year old children's name - writing development. *The Journal Of Children's Media*, 13(1), 313-332.
- Kwon, H. K., & Song, J. S. (2000).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attitudes toward emergent literacy and home literacy practices with toddlers and preschooler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6), 1-13.
- Lee, C. S. (1999). The role of word recognition in the reading process.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9(1), 133-151.
- Lee, C. S. (2005).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Seoul: Hakjisa.
- Lee, H. J. (2011). *A mother's awareness on the writing education in babyhood and an infant's development in wri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kyul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Lee, J. Y. (2010). *The perception of kindergarten mothers and fathers about reading & writing education for early childho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H., Ma, S. H., Kim, J. Y., & Jeong, J. H. (2015). *Language & literac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Goyang: Gongdongche.
- Lee, K. S., Kim, S. H., & Jung, J. W. (2010). A study on the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of three, four, and five-year-old Korean and Japanese children according to age, gender, and family income.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5(2), 211-240.
- Lee, K. S., Jang, Y. H., Jung, M. R., & Hong, Y. H. (2002). Parents' percept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very early education at hom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2(3), 153-171.
- Lee, M. J. (2004). The effects of writing instruction at home on writing ability.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5(1), 89-101.
- Lee, M. J., Hwang, H. S., Kim, J. H., Lee, H. J., Cha, Y. S., Park, J. Y., & Lee, H. K. (2014).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Gyeonggi: Gongdongche.
- Lee, M. O. (199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cy development and family literacy environment of 5-year-old and 1st grade childre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5(3), 263-281.
- Lee, M. S., & Kim, M. S. (2011).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preschoolers' emergent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literacy skills: Maternal language behavior in picture book reading.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6), 157-185.
- Lee, S. J., & Lee, B. S. (2009). *Language education for young*

- children. Seoul: Changjisa.
- Lee, S. Y., Kwon, M. K., Choi, I. H., Kim, M. J., Seo, J. H., Choi, N. Y., & Kim, J. H. (2010). *Language and literacy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Suwon: Gongdongche.
- Lee, Y. J., & Lee, J. S. (1985). Development of preschool children's reading writing behaviors under the undirective method. *Duksung Women's University Journal*, 14, 367-402.
- Lee, Y. J., & Lee, J. S. (1990). A study of young children's written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effects of non-directive teaching method on the development of written languag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28(2), 105-123.
- Lieberman, E. (1985). Name writing and the preschool chil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izona, Tucson). *Dissertations Abstract International*, 46/12, 3593A.
- Makin, L., & Whitehead, M. (2004). *How to develop children's early literacy: A guide for professional carers and educators*. (Choi, N. Trans). Seoul: Sigma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4)
- McGee, L. M., & Richgels, D. J. (2011). *Literacy's beginnings* (6th ed.). M. A.: Pearson.
- McGuinness, D. (1997). *Why our children can't read and what we can do about it*. NY: Touchstone Book.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2). *Age 5 education curriculum pro*. Seoul: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3). *Age 5 nuri course teacher's paper*. Seoul: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Myhill, D. (2011). Learning to write. In R. Fisher, D. Myhill, S. Jones & S. Larkin (Eds.), *Using talk to support writing* (pp. 1-19). London, UK: Sage Publications.
- Neumann, M. M., & Neumann, D. L. (2010). Parental strategies to scaffold emergent writing skills in the pre-school child within the home environment. *Early Years*, 30(1), 79-94.
- Neumann, M. M., Hood, M., & Ford, R. M., (2013). Using environmental print to enhance emergent literacy and print motivation. *Reading & Writing*, 26(5), 771-793.
- Neumann, M. M., Hood, M., Ford, R. M., & Neumann, D. L. (2011). The role of environmental print in emergent literacy. *Journal of Early Childhood Literacy*, 12(3), 231-258.
- Noh, S. H. (2012). *The impact of the balanced language education approach-based literacy activity on development of reading and writing skills of 4-years old children and children's reac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Noh, Y. H. (1994). A study on the writing ability of Korean infants.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10(2), 103-112.
- Noh, Y. H., Kim, C. B., & Jeon, Y. Y. (2014). *Early childhood language arts*. Paju: YangSeoWon.
- Oh, E. S., Kang, S. H., Park, H. M., & Lee, J. H. (2013). *Language arts for young children*. Paju: YangSeoWon.
- Oh, M. K., & Chae, S. H. (2010). Relations between 4 or 5-year-old children's phonological awareness ability and writing ability.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8(1), 1-15.
- Park, C. H., & Kim, G. S. (2015). The influence of the reading motivation of mothers with three to five year old children on the home literacy environ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2), 119-130.
- Park, C. O., Jeong, N. M., & Kwak, H. J. (2016). *Play and early chillhood education*. Seoul. Yangseowon.
- Park, E. H., Kim, J. H., & Park, S. H. (2013). A study of comparison between teacher's expectation level and actual teaching level of children's reading and writing by age.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17(5), 465-487.
- Park, E. H., & Park, S. Y. (2014). A study on mother's expectation level and actual teaching level of reading and writing for 3~5 year old children by age.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45(3), 167-192.
- Park, O. J. (2013).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literacy environment and young children's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Gyeonggi-do, Korea.
- Peterson, S. S., McIntyre, L. J., & Forsyth, D. (2016). Supporting young children's oral language and writing development: Teacher's and early childhood educators' goals and practices. *Australas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41(3), 11-19.
- Roberts, K. L. (2010). *Promise and possibilities of infusing parent-child read alouds with comprehension strategy instruction: an intervention stud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Mi-

USA.

- Senechal, M. (2006). Testing the home literacy model: parent involvement in kindergarten is differentially related to grade 4 reading comprehension, fluency, spelling, and reading for pleasure. *Scientific Studies Of Reading, 10*, 59-87.
- Senechal, M., & LeFevre, J. (2002). Parental involvement in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reading skill: a five-year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73*(2), 445-460.
- Shatil, E., Share, D. L., Levin, I. (2000). On the contribution of kindergarten writing to grade 1 literacy: a longitudinal study in hebrew. *Applied psycholinguistics, 21*(1), 1-21.
- Sim, J. H., & Pae, S. Y. (2016). The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literacy behavior, and children's concepts about print and writing ability. *Journal of Lift-Span studies, 6*(3), 33-48.
- Sigel, I. E., McGillicuddy-DeLisi, A. V., & Goodnow, J. J. (1992).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Song, J. S., & Song, S. M. (2006). A study of mother's beliefs regarding literacy development and home literacy practices with emphases on invented spellings and the whole language approach. *The Journal of Korea Open Associ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11*(1), 107-123.
- Song, T. G. (2004). *Mother's perception of reading and writing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and the conditions of language education at hom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 Sulzby, E. (1985). Children's emergent reading of favorite storybook: A developmental study. *Reading Research Quarterly, 20*, 458-481.
- Sung, C. H. (2004). *Analysis of child's writing ability through writing activ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Teale, W., & Sulzby, E. (1986). Introduction: Emergent literacy as perspective for examining how young children become writer and readers. in H. Teale, & E. sulzby (Eds), *Emergent Literacy: Writing and reading*. Norwood, NJ: Ablex.
- Welsh, J. G., Sullivan, A., & Justice, L. (2003). That's my letter!: what preschooler's name writing representa-
- tions tell us about emergent literacy knowledge. *Journal of Literacy Research, 35*(2), 757-776.
- Wortham, S. C. (1998). *Early childhood curriculum: developmental bases for learning and teaching*.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You, J. S. (1999). *A study on parent's attitude on the writing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Yun, E. Y.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ognitive home environment and young children's writing ability. *Asian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5*(2), 49-66.

Received: January 12. 2017

Revised: March 10. 2017

Accepted: April 17. 2017